

국내 주거생활에 나타나는 라탄(Rattan)가구 활용사례 연구*1

조숙경*2† · 김종서*3

A study on the examples of rattan furniture's applications in Korean residence*1

Sook-kyung Cho*2† · Jong-seo Kim*3

ABSTRACT

Rattan furniture is strips of cane around the frame that consists of wisteria, bamboo and wood. The materials are originally from Southeast Asia, and the material of domestic Rattan goods is Korean wisteria. Rattan, which is strong and elastic, is often used for craft materials, and it also retains the original feel of the material with great touch. It is beautiful and suitable for expressing curves. It is shiny, light in weight, easy for cleaning and ventilation. Rattan furniture is unique product made by human hands and nature and is an environment friendly well-being furniture. The use examples of these domestic rattan furnitures is condensed as below.

First, the materials of rattan product is wisteria, rice straw, bush clover wood, reed and bamboo.

Second, the use of rattan product which is made of domestic wisteria is limited to farming equipments and living wares.

Third, the materials of rattan furniture differs in domestic made and foreign made product. As is the characteristics of timbers growing in warmer climates of Korea, it has many twist and strong and it is not straight in length so it is hard to manufacture into and use as furniture also it is hard to acquire right size for the material.

Keywords: Rattan, Korean, Wisteria

*1. 논문접수 : 2006. 12. 25.

본 논문은 2006년도 서일대학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2. 서일대학 생활가구디자인과, Dept. of Living Furniture Design, Seoil College, Seoul, Korea, 131-702

*3. 국립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가구디자인전공, Dept. of Furniture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orea, 314-712

†. Corresponding author : Sook-kyung Cho (E-mail: kassel95@chol.com)

1. 서론

1-1 연구목적

라탄가구는 굵은 등나무나 대나무, 목재 등으로 골조를 만들고, 이것에 등나무줄기를 감아서 만든 것으로 재료는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이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4계절 기온도 점 점 상승하고 있다. 특히 한 여름의 온도는 해마다 난방제품의 매출을 극대화 시킬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가구시장의 변화가 예측된다. 라탄은 여름철 인기품목이기는 하지만 쿠션이나, 천, 가죽 등을 이용하여 가을, 겨울에도 색다른 연출법을 통하여 사용되고 있다. 열대기후에서 주로 애용되는 이러한 라탄가구는 유럽,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며, 그 수요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생활소품으로만 간주했던 라탄 재료를 이용한 가구개발에 소홀하기 때문에 조악한 디자인의 라탄가구를 수입하거나, 아주 고가의 유럽산 가구들을 사들여야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가구가 아닌 바구니, 베개, 지팡이, 깔개, 창문 가리개 등과 같은 생활소품으로 활용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소파, 의자, 테이블, 수납장, 파티션과 같은 여름철 가정용가구 또는 카페용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라탄제품 및 가구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전무하며, 단지 여름마다 불규칙적으로 가구 관련 월간 잡지에서 짧은 테마로 다뤄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조명등과 같은 인테리어 소품은 물론 중요한 가구의 소재로 부상하고 있는 라탄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한 국외 라탄과 국내 라탄의 활용예를 조사하고, 그 차이점 및 국내 라탄가구 활용사례를 디자인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으로 먼저 라탄가구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목재의 주요산지를 조사한다.

아시아산 라탄을 중심으로 특징을 분석하고, 원재료의 취득과 가공요령을 살펴본다. 또한 라탄가구의 특징과 장점, 단점을 분석하며, 그 활용 예를 국내·외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국내·외 전문도서 및 가구관련 잡지 그리고 인터넷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2차적으로 라탄가구 수입 및 제작회사를 방문하며, 주요산지, 국내 라탄의 활용에 그리고 그 특징을 중심으로 국외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라탄의 공정과정 및 특징

2-1 라탄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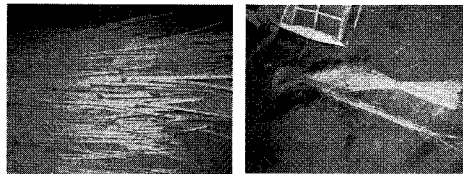
요즘은 가구로 판매되는 이른바 라탄(Rattan)가구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한 등나무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Rotan'이라는 말레이어에서 유래된 미국식 이름이다. 'Rotang'은 중국남부바다의 섬에 사는 원주민을 일컬으며, 또한 원시림에서 자라거나 농장식으로 재배된 덩굴식물인 라탄으로 추측된다.¹⁾ 우리나라에서는 "등"이라고 번역되어 참등이라는 말과 뒤섞여서 사용되고 있다.

1) naver dictionary
si-sa Elite Englisch-Korean Dictionary, 1994, p1837

2-2 라탄 가구재료 및 가공

라탄은 식물학적 분류에서 야자과에 속하는 덩굴성 식물로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산으로 분리된다. 이것은 100m이상 자라며, 지구에서 가장 높게 자라는 식물 중의 하나로써 평균직경은 5mm 이하부터 40mm까지이며, 최대 80mm까지 도달한다. 라탄재의 구조는 생장부분과 가지로 구성되지 않고, 변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라탄을 가공할 때는 최소한 6년 이상 자란 것을 벌채하여 줄기의 껍질을 벗기고, 알맞게 다듬어서 3-5m 길이로 자른다. <Fig. 1, 2> 그리고 물에 삶아서 끈게 편 후, 오일을 이용해 문지르면 녹색의 줄기가 담황색으로 변한다.²⁾ 일주일 정도 물에 담가 재질을 질기게 하고, 다시 천연 건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료가 완성되는 라탄 막대기는 주로 가구의 골격으로 쓰인다. 물에 삶는 다거나 천연 건조하는 이러한 방식은 1850년대 독일의 토네트(Thonet)가 서양너도밤나무로 곡목가구를 제작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라탄의 껍질은 편편하고 렌즈형의 측면도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넓이와 줄무늬의 형태로 재단된다. 껍질의 부목(副木)은 편편한 직경과 높은 강도 또는 미세한 휨성에 의해 둥근 라탄 속심과 구별된다. 껍질은 색상과 표면 그리고 재단 상태로 그 품질이 평가되며, 좌판과 등받이 그리고 감는 축이나 연결 및 고정에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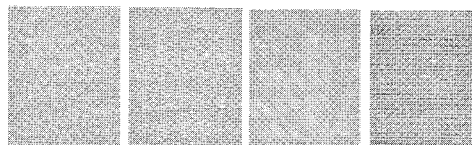
<Fig. 1>◁Material 1, philippines, 2004.

<Fig. 2>▷Material 2, philippines, 2004.

무르고 밝은 핵으로 된 속심은 다듬어진 라탄 막대기를 날카롭고 둥근 분사판 같은 특수한 기계에 통과시켜 여러 개의 같은 형태와 강도를 지닌 줄기를 얻는다.³⁾ 색상과 직경크기 그리고 가공 상태에 따라 품질이 평가되며, 바구니, 돛자리 그리고 가구의 연결 및 고정에 부분적으로 쓰인다.

2-3 엮는 구조와 색상

라탄을 엮는 방법과 짜임의 굵기 그리고 줄기의 크기에 따라 그 표면무늬가 아래 <Fig. 3>과 같이 다양하게 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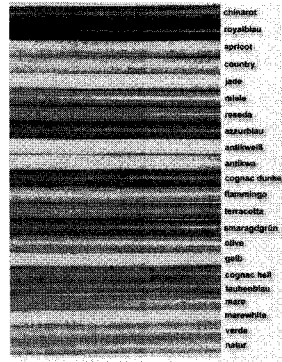
<Fig. 3> Surface's texture, Katz GmbH, Germany.

라탄의 횡단면 바깥은 안쪽보다 미미하지만 더 어둡게 보인다. 왜냐하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 수가 줄어들며 산만하게 분할된 세포줄기가 다양하게 촘촘한 배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2) naver dictionary

3) www. katz-flecht.de

서 라탄 원자재의 색상은 밝은 노랑부터 밝은 갈색까지 있으며, 아주 드물게는 붉은 갈색도 있다.



<Fig. 4> Color, Katz GmbH, Germany, 2006.

<Fig. 4>는 원자재의 고유색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색으로 염색된 예이다.

2-4 라탄의 특징

줄기는 튼튼하고 탄력이 있어 공예재료로 많이 쓰이며, 곡선표현에서 보여 지는 아름다움이 장점이나 현대에 와서는 직선적인 디자인으로 연출되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다. 원재료의 질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 촉감이 좋고, 광택이 있으며, 가볍고, 청소가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통풍이 잘 되어 실내는 물론 실외의 정원가구로 널리 쓰이며, 경우에 따라서 염색이나 도장으로 마감하기도 한다. 재료의 특성상 라탄가구는 여름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름에 시원한 반면 겨울에는 따뜻한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겨울에는 시각적으로 차가워 보이므로 천이나 쿠션을 사용하여 꾸미거나 부분 또는 전체의 진한 컬러도장으로 따뜻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3. 국외 라탄제품

3-1 주요산지

유럽은 라탄가구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원자재 및 생산지는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타일랜드 그리고 베트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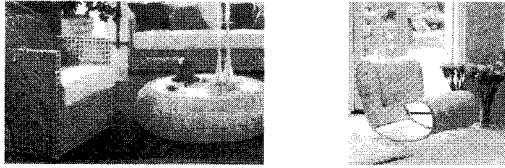
3-2 국외 라탄의 활용

3-2-1 거실용가구

촉감이 좋고 청소가 용이하며, 통풍이 잘 되는 라탄의 특징으로 인하여 소파나 의자에 많이 사용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구디자이너들은 대부분 한 개 이상의 라탄가구를 디자인한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외국의 라탄가구 회사들은 다른 가구분야와 동일하게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나 재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탈리아의 피에란토니오 보나치아 (Pierantonio Bonacina) 라는 회사도 다양한 라탄가구

를 생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침대에도 라탄을 사용할 정도로 훌륭한 기술과 디자인을 해마다 박람회에서 선보이고 있으며, 지속된 연구와 함께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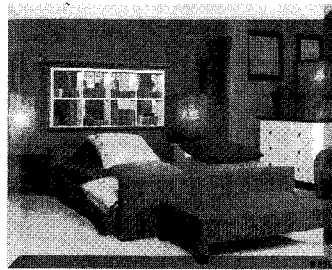


<Fig. 5> Sofa, Germany, 2005. <Fig. 6> Rocking chair Cane-line, Denmark, 2006.

<Fig. 6>은 금속후레임에 라탄으로 씌운 흔들의자로 받고 경쾌하며, 그 심플함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3-2-2 침실용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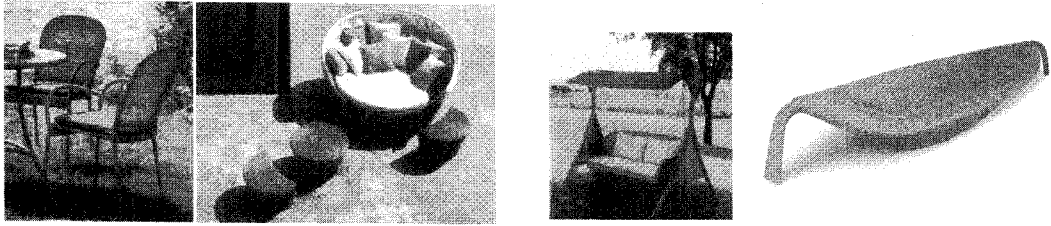
튼튼하고 탄력성이 있으며, 통풍이 잘 되는 라탄의 장점으로 인하여 침실에서의 침대재료로도 많이 쓰인다. 아래그림 <Fig. 7>에서 보이는 것처럼 곡선과 직선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연출이 가능하다. 여름에 일반적인 침대를 사용할 경우 후레임과 매트리스로부터 올라오는 열로 인하여 잠을 청하기가 어려운데 라탄으로 만들어진 침대는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시원한 잠자리가 용이하다.



<Fig. 7> Bed, Germany, 2006.

3-2-3 야외용가구

가벼워 운반이 간편하고, 청소가 용이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점으로 인하여 테이블과 의자, 소파, 그네 등과 같은 정원가구로 많이 활용된다. 또한 정원뿐만 아니라 풀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침대와 같이 누울 수 있는 의자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Fig. 8> Chair, Cane-line, Denmark, 2006

<Fig. 9> Sofa, DEDON, Germany, 2005.

<Fig. 10> Chair, Cane-line, Denmark,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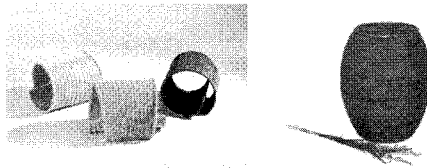
<Fig. 11> Lounge, DEDON, Germany, 2006.

<Fig. 8, 10>을 제작한 Cane-line사는 1986년에 설립된 덴마크회사로 라탄가구만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현재는 3,000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56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⁴⁾ <Fig. 8>은 야외용 의자와 테이블로 후레임은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Fig. 10>은 정원에 놓여 지는 의자 겸 그네이다. 이 또한 금속후레임에 지붕과 좌판 그리고 기둥측면을 라탄으로 처리하였으며, 좌판과 등받이에 쿠션을 놓아 안락함을 추구하였다.

<Fig. 11>의 소파를 제작한 독일의 데돈(DEDON)이라는 회사는 라탄가구의 재료와 비슷한 '홀라로(HULARO)'라는 재료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폴리에틸렌을 기초로 염색하고 성형한 합성 섬유로써 라탄 원료보다 좋은 점은 비바람에 잘 견디고, 찢어지지 않으며, 기온 차에 반응하지 않고 튼튼하다는 데 있다. 또한 다양한 모양과 컬러가 있고, 삼이나 등나무 등과 같은 자연재질과 같이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도 날씨변화에 잘 견딘다.⁵⁾ <Fig. 9>는 이 재료로 만든 야외용 소파와 간이 의자이며, 흰색의 소파 등받이는 태양빛을 가리기 위해 지붕처럼 위로 올라왔다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다시 아래로 접힌다.

3-5 기타소품

가구뿐 만아니라 생활소품 개발에도 많은 발전을 이룩한 외국의 경우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다. <Fig. 13>의 스툴은 라탄의 곡선을 잘 나타내면서도 단순한 디자인으로 간의의자로 사용하면서 아래 부분에 잡지 같은 소품을 수납할 수 있는 장점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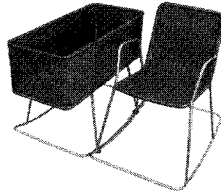


<Fig. 13> Stool, Katz GmbH. Germany, 2006

<Fig. 14> vase, France, 2006, import: The one

4) www. cane-line.com

5) Furniture Journal, 2002. 6 p.160



<Fig. 15> < Cane-line, Denmak, 2006.

<Fig. 16> >Rocking chair or pet, Germany, 2003.

<Fig. 14>는 생화보다는 인테리어용 조화를 꽂아두거나 곡식을 담을 수 있는 높이 50cm인 향아리로 우리나라 고유의 채독 <Fig. 25>와 유사하다.

<Fig. 15>는 금속후레임에 라탄으로 마무리한 웨건으로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Fig. 16>은 사람이 사용하는 흔들의자와 애완동물을 위한 요람으로써, 이와 같이 개와 고양이를 위한 집이 라탄으로 많이 제작되고 있다. 다리 맨 밑 부분에 있는 금속 조임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제품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라탄제품을 고를 때에는 빛깔이 곱고 광택이 있으며, 신축성이 뛰어난 것이 좋다. 제품의 관리는 진공청소기나 부드러운 솔로 먼지를 제거한 후 마른걸레로 닦아 주면 된다. 때가 많이 탔을 경우에는 소금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고, 그늘에서 말리면 색상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Fig. 17>은 합성섬유인 홀라로로 제작된 의자의 손질법으로 솔에 세제를 묻혀 닦으면서 물로 씻어내고 있다.



<Fig. 17> Cleaning, DEDON, Germany,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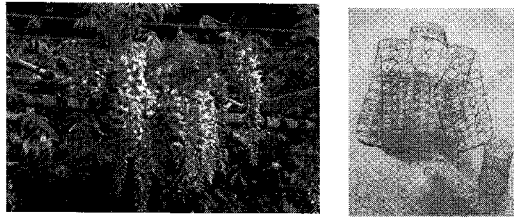
4. 국내 라탄제품

4-1 국내 라탄재료

등나무는 콩과로 등, 참등이라고도 하며, 여름에 피약별을 피해 그늘을 만들기 위하여 정원이 나 공원에 흔히 심는 나무 덩굴이다. 우리나라에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일부에 자생을 하며, 산기슭이나 계곡에서 잘 자라고 성장이 빠르며, 내한성이 강하다. 정원수뿐만 아니라 분재로도 가능하며, 매염제에 대한 반응이 좋아 다양한 색상을 내는 염료로도 사용된다. 줄기는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가며, 13~19개의 달걀 모양의 작은 잎으로 구성된다. 꽃은 <Fig. 18> 5월에 잎과 같이 피고, 연한 자줏빛과 흰색이 있으며, 꽃말은 '환영'이다. 어린잎이나 꽃은 무쳐 먹고, 적절한 두께의 덩굴은 바구니를 만드는데 쓰이며, 질긴 나무껍질은 새끼를 꼬거나 키를 만든다. 꼬아진

굵은 두께의 줄기는 지팡이로 쓰이고, 등나무의 덩굴을 가늘게 꼬개어 만든 ‘등거리’는 시원한 여름용 속옷으로 안성맞춤이다.

등거리는<Fig. 19> 상류층에서 조끼형으로 만들어서 적삼 밑에 받쳐 입었던 것으로 한말까지 사용되었다.



<Fig. 18>◁ Flower of Rattan, Korea.

<Fig. 19>▷ a sleeveless Jacket, museum nonghyup, Korea, 2006.

이렇듯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자라는 등나무는 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이며, 가구 재료로는 부적합하다. 등나무 줄기는 섬유로 가공이 가능하여 “계림유사”에는 신라에 등포가 난다라는 기록이 있고, “고려도경”에는 고려의 종이에는 모두 탁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때로 등섬유로 종이를 만들었다고 적고 있다. 또 등나무로 그릇을 만들어 썼다고도 하며, 요즈음에는 등거리꽃이 많아 양봉 농가에서 환영하는 나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등나무가 물체를 타고 기어 올라가는 특성으로 예로부터 좋지 못한 것으로 비유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중종 32년(1537) 11월15일조에 홍문관 김광진 등이 올린 상소문에 <대체로 소인들은 등나무 넝쿨과 같아서 반드시 다른 물건에 의지해야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적혀있으며, 중종34년(1539) 10월20일 전주 부윤 이연적이 올린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상소문에서는 <군자는 소나무나 측백나무 같아서 홀로 우뚝 서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지만, 간사한 사람은 등나무나 겨우살이 같아서 다른 물체에 붙지 않고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쓰여 있다. 인조 14년(1636) 5월4일 부수찬 김익희가 올린 상소문에는 <빼어나기가 송백(松柏)과 같고 깨끗하기가 빙옥(氷玉)과 같은 자는 반드시 군자이고 빌붙기를 등나무나 담쟁이 같이 하고 교결하기를 뱀이나 지렁이와 같이 하는 자는 반드시 소인일 것이요>하여 등나무와 담쟁이덩굴을 가장 멸시하던 소인배와 비유하고 있다.⁶⁾

알맞게 자란 등나무 줄기 <Fig. 22>는 지팡이 재료로 적합한데 영조41년(1764) 11월27일 조에 보면 <임금이 담으로 당기는 증세가 있어 걸기가 자못 전과 같지 않았다. 여러 신하들이 지팡이를 붙들고 다니기를 청하니, 임금이 처음에는 어렵게 여기다가 후에 내국에 지팡이를 구하여 바치도록 명하였다. 심수가 장계군 이병의 집에서 등나무 지팡이 하나를 얻어서 바치며 아뢰기를, “이 등나무는 이름하여 만년등(萬年藤)이라 하는 것입니다.”>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에서는 등나무로 향을 만드는데, 이 향을 피우면 향기가 좋고 다른 향과 잘 조화되며 자색의 연기가 곧바로 올라가 그 연기를 타고 신이 강림한다고 믿었다고 한다.

6) naver dictio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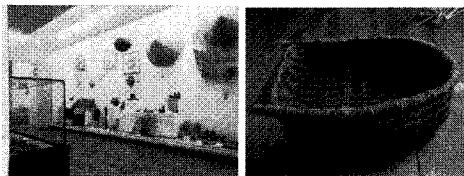


<Fig. 20> Stem of Rattan, Korea.

4-2 라탄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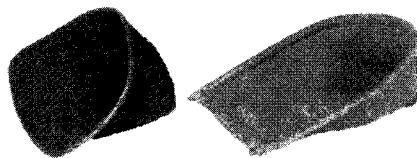
국내 가구디자이너들도 라탄가구디자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내 라탄가구 제조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내기업이라 하더라도 공장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두고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 개발보다는 기존의 다른 회사 제품을 카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보다 더 많은 라탄가구가 유럽과 인건비가 적게 드는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어낸 조악한 제품들이 수입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에는 짚풀공예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찾고자하는 목적으로 사설 짚풀생활사박물관이 1993년 설립되었다.⁷⁾ 이곳에서는<Fig. 21> 짚과 풀은 물론 대나무, 닥나무 꺾질 그리고 부들 등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전시되어있다.

<Fig. 22>의 바구니는 우리나라 동나무줄기로 가장 많이 만들어진 품목 중의 하나로 곡물을 담아 나르는 용도이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는 삼태기가 있다<Fig. 23>.



<Fig. 21> < museum of Korea straw and plants handicraft.

<Fig. 22> > Basket, museum nonghyup, Korea,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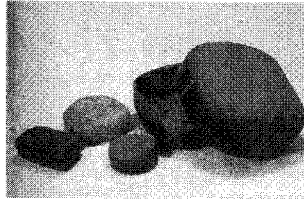
<Fig. 23> Basket, museum nonghyup, Korea, 2006.

삼태기는 재나 두엄을 담아 나르는 도구로 등 나무를 U자로 쳐서 뼈대를 만든 후 짚이나, 칩닝쿨로 엮거나 짜릿대, 또는 얇게 조갠 대오리 등으로 만들기도 한다.

바구니와 삼태기가 뚜껑이 없이 사용된 제품 이라면 동고리<Fig. 24>는 뚜껑있는 대표적인제품이다. 이것은 윗 뚜껑이 아래 것을 폭 덮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과거에는 혼수의 필수품이어서 반드시 삼합을 해서 가지고 갈다고 한다.⁸⁾ 또한 제사에 떡을 보관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7) Gagu Guide, 2006. 06. p250

옷이나 책을 넣어두기도 하였다.



<Fig. 24> A small round wicker suitcase, Korea, 1995.

등우리는<Fig. 25 > 닭이 알을 낳거나 품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로 등나무 줄기나 대나무로 만들어져 추녀 밑이나 닭장의 ছ에 매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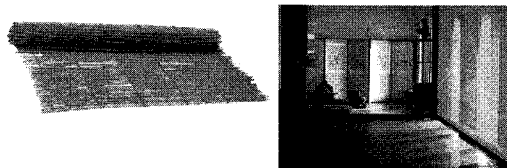


<Fig. 25>◁ Nest, museum nonghyup, Korea, 2006.

<Fig. 26>▷ a large paper-lined wicker basket in the shape of a deep jar, museum nonghyup, Korea, 2006.

채독은<Fig. 26> 싸리나 등나무로 배가 부르게 독처럼 엮은 것으로 감자, 고구마 콩과 같은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였다. 주로 용기를 구하기 어려운 산간지방에서 사용한 도구로 이렇게 엮은 후 사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겉 표면에 소똥이나 진흙을 덧발라 곡류가 세어 나오는 것을 막기도 하였다.

발은<Fig. 27> 가옥구조상< Fig. 28> 마루를 사이에 두고 안방과 건너방을 가려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고대에 이미 계급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물이었다. 신라시대 육두품(六頭品)이 타는 가마의 발은 가선을 비단 이하로 하도록 했고, 오두품(五頭品)이 타는 가마의 발은 가죽이나 베로 가선을 두르도록 했다. 신라의 이 전통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졌다. 조선조 초기에 완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왕과 왕비가 타는 대연(大輦)과 함께 가마에 처지는 발의 구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Fig. 27>◁Blind, museum nonghyup, Korea,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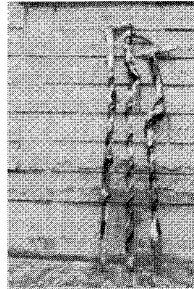
<Fig. 28>▷the women's living room, museum of Korea straw and plants handicraft, Korea, 2006.

8) 인병선, 우리짚문화, 현암사, 2005 p401

밭에는 크게 문밭, 창문밭, 가마밭이 있었으며, 재료는 대나무와 갈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대밭은 대나무를 국수가닥처럼 가늘게 쪼개 맨다. 구멍 뚫은 쇠틀에 여러 번 뽑은 대밭은 윤이 자르르 흐르는 것이 마치 비단과 같다. 대나무로 비단을 만드는 재주가 바로 염장(簾匠)의 솜씨였던 것이다.⁹⁾ 또한 고추나 각종 농작물들을 건조시키는데 사용되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여름에 햇빛을 차단하거나 내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리개로 많이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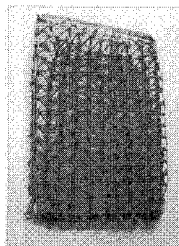


<Fig. 29> ◁Basket, museum nonghyup, Korea, 2006.



<Fig. 30> ▷Stick, museum nonghyup, Korea, 2006.

<Fig. 29>는 등나무 줄기를 엮어 만든 바구니로 소품이나 과일 등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으며, 크기도 다양하다. <Fig. 30>은 등나무로 만든 지팡이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애용되고 있으며, 그림과 같이 부분적인 칠을 하여 장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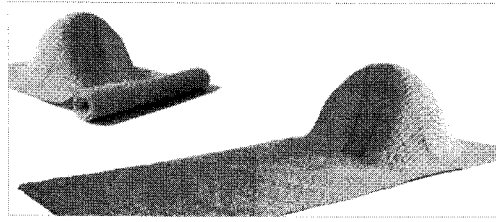


<Fig. 31> Silkworm brushwood, museum of Korea straw and plants handicraft, Korea,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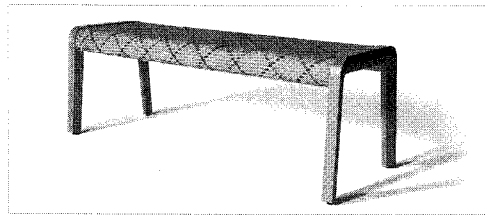
<Fig. 31>은 누에솥으로 익은 누에를 넣어 그 속에 고치를 짓게 하는 집으로 대나무로 후레임을 만들고 짚을 꼬아 만든 끈으로 엮었다.

위에서 살펴본 예와 달리 <Fig. 32>는 현대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명석의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한데 큰 의미가 있다. 모두 펼쳐놓을 수도 있고, 앞을 둘 둘 말아 턱을 만들어 앉기도 한다. <Fig. 33>도 까사미아의 제품으로 좌우 다리는 목재로 만들고 좌판을 대나무로 엮어 만든 벤취이다. 이 두 제품은 국내 가구디자이너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까사미아와 같이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국내 디자이너와의 협력을 통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만 한다.

9) www.zipul.co.kr: museum of korea straw and plants handicraft



<Fig. 32> Floor mat, ha, ji-hoon, casamia, Korea, 2003.



<Fig. 33> Bench, ha, ji-hoon, casamia, Korea, 2003.

위와 같이 국내의 과거로부터 사용되고 있는 라탄제품은 국외와 비교해 볼 때 가구보다는 소품에 치중되어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자라는 등나무를 연구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제품개발이 미흡한 데 있다고 하겠다.

4-3 국내 라탄 활용사례 분석

국내 라탄 활용사례는 과거 우리의 농경문화를 대변해 주는 듯 농업관련제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래<Table1>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5. 결론

라탄가구는 인간의 손과 자연으로부터 독특하게 만들어진 제품으로 환경친화적인 웰빙가구이다. 국내 주요산지로는 경상남도과 전라남도 일부이며, 이러한 국내 라탄제품의 활용예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료로는 등나무를 비롯하여 벚짚, 싸리나무, 대나무, 갈대 등이 함께 쓰였다.

둘째, 국내산 등나무를 활용한 라탄제품은 기능면에서 볼 때, 농업에 관련된 도구 및 생활소품에 한정되어 있다. 주로 농업 관련된 도구로만 생산되는 라탄제품은 농촌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중국에서 싸게 들어오는 바구니 등의 소품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등나무를 이용한 제품개발을 하지 않아 생활소품으로써의 라탄제품의 개발이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셋째, 국내산과 국외의 라탄재료가 다르다. 우리나라 온대기후에서 성장하는 원자재의 특성상 꼬임이 많고 단단하며, 길이로 끈지 않아 가구로 활용하기위한 가공이 어렵고, 필요한 크기의 재료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종개발 및 원재료에 맞는 제품개발연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Table 1> Examples of rattan applications

	이미지	명칭	기능	형태 및 구조	재료
1		등거리	여름용 속옷.	조끼나 옷옷형태로 줄기를 등성등성 엮어 만듦.	등나무줄기
2		바구니	곡물을 담아 운반하거나 과일 및 견과류를 넣어둠.	농업에 관련된 것은 삼태기에서 변형된 것이 많으며, 실 내인테리어용품으로는 그릇에 가까운 형태를 띠.	등나무줄기 또는 대나무줄기
3		삼태기	곡물이나 재를 운반함.	키와 비슷하며 위와 한 쪽면이 개폐된 형태	등나무줄기(후레임), 벗짚
4		등고리	혼례음식, 떡, 옷, 책등을 수납함.	뚜껑이 있으며, 사각의 기본형에서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됨.	대나무
5		등우리	닭이 알을 낳는 곳	타원형이며, 구멍이 있음.	등나무, 대나무
6		채독	고구마, 감자 등의 곡식저장	타원형으로 표면에 쇠뚝이나 진흙으로 마감함.	싸리나무, 등나무
7		발	햇빛 또는 다른 공간과의 차단 및 곡식을 건조할 때 사용.	사각형으로 명석과 같은 형태이며, 대나무나 갈대줄기를 엮어 만듦.	대나무, 갈대
8		지팡이	노인들이 길을 걸을 때 사용	꼬아진 등나무줄기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낸 형태	등나무
9		누에쇼	누에가 고치를 짓게 하는 집	대나무로 후레임을 만들고, 벗짚을 이용하여 엮음.	벗짚, 대나무
10		양탄자	거실에 깔아놓는 매트 겸 지지대	명석의 형태를 응용한 라탄 제품	라탄
11		벤취	여럿이 앉는 의자	칼라가 다른 라탄으로 좌판을 엮어 만듦.	원목, 라탄

본 연구는 가구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전문가에게 다양한 재료와 가구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이것을 기초로 디자이너들의 라탄에 대한 많은 개발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가구관련 산업체 및 라탄가구 제조업체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국내 라탄가구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 인병선, 우리짚풀문화, 현암사, 2005.
가구가이드, 2006. 06.
가구저널, 2002. 06
www.cane-line.com
www.dedon.de
www.katz-flecht.de
www.rattan-hoefner.de
www.rattan-aktuell.de
www.holzhandel.de
www.museum.nonghyup.com
www.zipul.co.kr

학 회 소 식



2006. 12. 16 가구가이드와 가구학회 임원진간 미래의 가구산업과 가구학회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대화 중, 홍대앞 엘라또레에서(앞의 좌부터 전수경, 최병훈,
조숙경, 박민찬, 김경원, 백은, 김성아)